

전국 중고생들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여성가족부, 2019), 온라인의 다양한 플랫폼 중 한 가지인 스마트폰 채팅앱은 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지목되기도 한다(장명선, 2018). 청소년들이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상대방과 만나거나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조건만남에 응하게 되는 다양한 경로 중 채팅앱이 차지하는 비율은 79.5%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특히 랜덤채팅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9). 하지만 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거나 피해 청소년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묻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허현정, 2020).

2018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20세 이하의 피해자는 전체의 약 27%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나(대검찰청, 2019),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판단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김성현 외, 2019; Rogers & Davies, 2007), 성인 피해자 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 및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있어 가해자 및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만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가 피해자 비난 및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청소년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이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함께,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처벌 판단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등 법에서 정해진 요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이가영, 인다희, 김범준, 2018). 그러나 처벌 판단에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판단자의 태도 등 법 외적(non-legal or extra legal) 요인들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은, 이현정, 허태균, 2018; Devine & Caughlin, 2014). 특히 국내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가해자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법 외적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김혜선, 박지선, 2018).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일반인의 인식이 편향되어 있을 경우 부

당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오주령, 박지선, 2019).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판단자의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특히 평소 피해자의 행실 혹은 피해 당시 상황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범죄 발생의 원인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자 비난과 연관되어 지적받아 왔다(권인숙, 이견정, 김선영, 2016; 추지현, 권인숙, 2017).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 주변에서 피해를 축소시켜 생각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권인숙 외, 2016). 이처럼 피해자가 경험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의 부정적인 반응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후유증이 심각해지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추지현, 권인숙, 2017; Ullman & Fillipas, 2001).

더 나아가서,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들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범죄 신고의 의도를 의심하는 등의 반응을 경찰로부터 경험한 사례도 다수 보고된 바 있다(이명신, 양난미, 2012). 이처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은 성범죄 수사의 초점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로 옮김으로써 편향된 수사로 이어지고, 피해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며,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노성훈, 정진성, 2019; 박지선, 김정희, 2011; 박지선, 박인선, 2011; 허민숙, 2017).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인식 연구는 대부분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즉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단과 함께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다움’이란 사회에서 기대하는 ‘전형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하는 반응 혹은 태도로 정의되며, 피해자다운 모습이란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절망하거나 우울한 등의 위축된 모습, 혹은 성범죄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을만한 정숙한 모습 등을 포함한다(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피해자에 걸맞다고 생각되는 태도나 행동을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허민숙, 2018; Randall, 2010). 이러한 ‘피해자다움’은 성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 피해자에게도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 피해자가 학대 경험에 대해 증언을 할 때 피해자로서 기대되는 모습과 일치하는 감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게 평가되고, 범죄 피해가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Landström, Ask, Sommar, & Willén, 2015).

‘피해자다움’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피해자 진술을 판단하는 경향은 사법체계 종사자에게서도 나타난다(Ask, 2010; Sleath & Bull, 2017). 경찰과 검찰 모두 피해자의 비언어적, 감정적 표현이 진술의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고, 가정

폭력이나 강도 등의 다른 범죄 피해자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비교적 더 표현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Ask, 2010).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고정관념은 ‘피해자다움’에 일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켰다(Parratt & Pina, 2017).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동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이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거나 울지 않고 태연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신뢰도를 의심받고, 더 나아가 성범죄 신고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한다(허민숙, 2017; 허민숙, 2018). 더불어, 성폭력 사건 발생 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행위 역시 ‘피해자답지 않은’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윤덕경, 김차연, 2015).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피해자의 표현이나 반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과 관련된 이전 경험이나 직업과도 관련이 있다. 즉, 피해자의 직업이나 과거 품행을 바탕으로 ‘좋은’ 피해자와 ‘나쁜’ 피해자, 혹은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가 나뉘어 평가되기도 한다(Hockett, Smith, Klausling, & Saucier, 2016; Randall, 2010).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자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피해자는 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빙성과 신뢰도를 낮게 평가받기도 한다(Randall, 2010). 이러한 구분과 평가는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성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저해하고, 결국 외부에 알려지지 않거나 신고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친다(허민숙, 2018).

특히 성매매 여성의 경우 ‘이상적 피해자상’에서 벗어난 피해자로 인식되어, 이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며(Sullivan, 2007) 피해자로서의 신뢰도를 의심받는 일이 비교적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Nixon, Tutty, Downe, Gorkoff, & Ursel, 2002; Page, 2010). 즉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전력이 있을 때, ‘진짜 피해자’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답지 못한 피해자로 인식되어 피해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한다(최성호, 2019). 실제로 성매매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지만 신고하기를 꺼리는데, 이는 경찰의 대처와도 관련이 있다(Sullivan, 2007). 한 연구에서 경찰들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매매 여성일 경우,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에 비해 그 말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Page, 2008). 특히 일부 경찰의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성범죄 피해 신고를 “진짜”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매매에서 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것을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Page, 2010).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전력이 제시되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이 무죄 판단으로 바뀌고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등, 사건과는 관계없는 피해자의 유사성매매 전력이 피해자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 판단을 내리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역시 성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Bieneck, & Kraché, 2011; Catlin, Scherr, Barlett, Jacobs, & Normile, 2019). 특히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보다 지인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판단이 더 가혹해지는데, 면식범에 의한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더 적게 몰았다 (Bieneck, & Krahe, 2011; Catlin et al., 2019). 이러한 경향은 판단자가 스스로를 피해자의 입장에 대입시켜 보았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범행 이전부터 가해자와 알던 사이일 경우 가해자와 모르던 사이일 때에 비해 피해자인 자신이 범죄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각하였고, 피해 사실을 신고할 의도를 낮게 평정하였으며 피해자인 자신을 사람들이 더 많이 비난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Catlin et al., 2019). 실제 피해자들이 경험한 피해자 비난을 조사해본 결과, 성범죄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을 때보다 서로 알던 사이였을 때 더 많은 피해자 비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인숙 외, 2016).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르는 관계보다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으로 이어져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 양난미, 2012). 국외에서도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낯선 관계보다는 이전에 연인 관계였을 경우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는 더 적게 비난하였다(Parratt & Pina, 2017). 검찰이 기소할 확률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 관계일 때보다 비면식 관계일 경우에 더 높아졌으며, 고소를 취하하는 비율이 낮고, 가해자가 재판이나 유죄 협상 과정에서 혐의를 벗기가 더 어려웠다(Lievore, 2005).

지금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기존의 지인 혹은 연인 관계, 서로 모르는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채팅앱을 통해 만난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구분상으로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지만 기존 연구에서의 서로 모르는 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시켜,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과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도 성범죄 사건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강간 통념 수용도 및 권위주의 성격이 성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가해자의 처벌 판단에는 피해자 요인에 더해 평가자의 태도 역시 영향을 미치기에 다양한 태도를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서윤정, 박지선, 2013; Grubb & Turner, 2012; Spaccatini, Pacilli, Giovannelli, Roccato, & Penone, 2019). 그 가운데 강간 통념(rape myths)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강간 사건 및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리키며, 남성은 성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등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고, 성범죄 피해 여성의 평소 행실이나 품행을 문제 삼는 등 성범죄 사건에 관한 편향된 태도를 반영한다(Lonsway & Fitzgerald,

1994). 강간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성범죄의 책임을 더 많이 전가하고(Grubb & Turner, 2012; Klement, Sagarin, & Skowronski, 2019), 가해자를 더 관대하게 평가하였다(Süsslenbach, Eyssel, Rees, & Bohner, 2017). 강간 통념은 정보 수집 혹은 기억과 같은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Dawtry, Cozzolino, & Callan, 2019), 연구 참가자들의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더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사진을 더 많이 응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Süsslenbach et al., 2017). 또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할 뿐 아니라, 강간 통념에 맞는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하고, 모호한 상황을 더 강간 통념에 맞도록 기억하는 양상을 보였다(Dawtry et al., 2019). 한편, 피해자 역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해 더 부끄럽게 여기고 자책하는 등 피해 후 경험에 영향이 있으며(권인숙 외, 2016),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는 피해자의 성폭력 후유증을 가중하기도 한다(추지현, 권인숙, 2017).

강간 통념 수용도는 성차별에 대한 태도나 종교적 편협성 등 다양한 보수적인 태도와 함께 나타나는데(Aosved & Long, 2006), 본 연구에서는 특히 권위주의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과의 연관성에 집중하였다. 권위주의 성격은 민족중심적이며 관습적이고, 하급자에게 가혹하며 권위에 복종하는 특성을 의미한다(Stewart & Hoult, 1959).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이나 기존의 제도, 관행과 같은 권위에 복종하며, 사회 변화를 거부하고 종교적 신념이나 성에 대한 견해에서도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Altemeyer, & Altemeyer, 1996). 권

위주의 성격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도 연관이 있어, 성소수자나 외국인 등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함께 논의되었다(김은하, 신윤정, 2016;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이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더 많이 내리고 사형을 더 많이 언도하는 등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Bray & Noble, 1978). 주목할 점은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의 영향이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다(Devine & Caughlin, 2014).

아직까지 권위주의 성격과 성범죄 판단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전통적 성별 규범에 맞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더 적대적이고 무관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높은 권위주의 성격의 특징(Sibley, Wilson, & Duckitt, 2007)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 판단과 관련하여, 권위주의 성격이 높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 사이에서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성적으로 묘사된 피해자를 그렇지 않은 피해자보다 더 많이 비난하였으나, 권위주의 성격이 약한 사람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대상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Spaccatini et al., 2019). 권위주의 성격은 강간 통념 수용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Manoussaki & Veitch, 2015).

선행연구 중 강간 통념 수용도가 성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비해, 권위주의 성격이 성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간 통념 수용도와 함께 권위주의 성격이 성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범죄 사건 판단에서의 성차 및 연령차

성범죄 사건 판단의 성차가 꾸준히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노성훈, 정진성, 2019), 성범죄 사건 판단에 있어 피해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전가하며(홍영은, 박지선, 2018; Grubb & Turner, 2012), 피해자의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다(Sleath & Bull, 2017). 이러한 경향성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관찰되었다(Esnard & Dumas, 2013; Rogers & Davies, 2007).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덜 신뢰하고 더 많이 비난하였으며, 가해자를 덜 비난하고 성범죄 사건을 덜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Esnard & Dumas, 2013; Rogers & Davies, 2007). 하지만 성별에 의한 영향은 종종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증거가 미비할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를 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Bhattacharya, Stockdale, 2016), 여성 경찰관의 성범죄 용의자 체포 비율이 남성 경찰관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Alderden & Ullman, 2012),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에게 한층 더 엄격하거나 가해자에게 더욱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성범죄 사건 판단의 성차를 보고한 연구에 비해, 연령차를 보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조은경, 박지선, 2020). Hockett 외(2016)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자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성차는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졌다. 즉, 청소년들의 피해자 인식의 성차가 대학생들의 피해자 인식에서의 성차보다 커, 남자 청소년이 성인 남성이나 여성 청소년보다 피해자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Hockett et al., 2016). 국내에서는 연령이 성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범죄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판단이 달라진다면 앞서 살펴본 강간 통념 수용도나 권위주의 성격 등 판단자의 태도가 이를 매개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 남녀 총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나리오에 제시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틀리게 이해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41명을 제외하고 총 335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여성은 170명(50.7%), 남성은 165명(49.3%)이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최소 20세부터 최대 59세였으며, 각각 20대 81명(남: 39명, 여: 42명), 30대 86명(남: 40명, 여: 46명), 40대 85명(남: 44명, 여: 41명), 50대 83명(남: 42명, 여: 41명)이었다. 여성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8.99세($SD = 10.83$), 남성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9.78세($SD = 11.02$)였다.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333) = .655, p = .51$).

연구절차

연구 조건 및 시나리오

각 연구 참여자에게는 본 연구의 조건, 즉 2(피해자다움: 부합 vs. 비부합) × 2(성매매 전력: 있음 vs. 없음) × 2(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아는 사이 vs.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사이)의 총 여덟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시나리오가 무선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7월 경 피고인(남, 22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혹은 “같은 의류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피해자(여, 15세)에게 “함께 놀러 가자고 하여”(혹은 “아르바이트 끝나고 함께 놀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혹은 “태연하게”) 노래방을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며, 이후에 신고하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의 채팅을 나눈 기록은 없는 것으로”(혹은 “몇 차례 더 일상적인 메시지를 포함하여 카톡 메시지로 채팅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혹은 “약 8개월 동안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 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성매매 전력이 있었으나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과거 다른 범죄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고”(혹은 “과거 다른 범죄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작 점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조작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세 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먼저 각각 제시된 시나리오 속의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여부를 묻는 문항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아는 사이 혹은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사이)를 묻는 문항을 통해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총 376명의 연구 참여자 중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여부에 대해 잘못 응답한 사람이 24명이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잘못 응답한 14명, 두 문항 모두 잘못 응답한 3명 등 총 41명이 조작 점검에서 제외되어 이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다움에 대한 조작 점검은 “앞의 내용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은 전형적인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다(1 = 전혀 가깝지 않다, 7 = 매우 가깝다). 그 결과,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울면서 노래방을 나가 신고하기까지 더 이상 피고인과 채팅을 나누지 않음)를 읽은 조건의 연구 참여자들($N = 173$, 평균 = 5.19, 표준편차 = 1.47)이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태연하게 노래방을 나가 신고하기까지 몇 차례 더

피고인과 채팅을 나눔)를 읽은 조건의 연구 참여자들(N = 162, 평균 = 3.49, 표준편차 = 1.78)에 비해 피해자의 태도가 '전형적인 피해자의 통상적 태도'에 더 가깝다고 평가하여 ($t(312.63) = -9.482, p < .001$), 피해자다움 조작이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 평가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해자 처벌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 = 최대한 가벼운 처벌, 7 = 최대한 무거운 처벌)로 평가하였고, 피해자 비난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강간 통념 수용도

강간 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Subtle Rape Myths Acceptance Scale(SRMS; McMahon & Farmer, 2011)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22문항('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강간은 남성의 성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만약 여성이 신체적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응답한다. 응답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9이다.

권위주의 성격

민경환(1989)이 제작한 권위주의 성격 척도를 이용하여 권위주의 성격을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내성주의(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며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태도),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이라는 아홉 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Adorno, Frenkel-Brenswik, Levinson, & Sanford, 2019). 주어진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통해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권위주의 성격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6이었다.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25.0과 PROCESS macro 3.5 버전을 사용하였다. 먼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다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에 따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피해자다움, 가해자-피해자 관계, 성매매 전력에 따른 사건 판단에서의 차이

피해자의 피해자다움과 성매매 전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따라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이 모두 달라졌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일 때보다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t(308.18) = -5.12, p < .001$), 피해자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t(333) = 2.96, p < .01$).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있어서 차이

가 나타났다($t(333) = 2.21, p < .05$).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일 때에 비해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일 때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문항에 더 강하게 동의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에 따른 가해자 처벌 판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에 따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강도 역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다움, 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한 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연령대에 따른 사건 판단 및 판단자의 태도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표 1.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가해자-피해자 관계, 성매매 전력에 따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

종속변인	독립변인	<i>M (SD)</i>	<i>t</i>	<i>df</i>
피해자다움	부합하지 않음	4.69 (1.80)	-5.12***	308.175
	부합	5.60 (1.44)		
가해자 처벌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	5.28 (1.70)	1.41	333
	아는 사이	5.02 (1.67)		
성매매 전력	없음	5.32 (1.64)	1.80	333
	있음	4.99 (1.72)		
피해자다움	부합하지 않음	3.87 (1.96)	2.96**	333
	부합	3.27 (1.78)		
피해자 비난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	3.78 (1.95)	2.21*	333
	아는 사이	3.33 (1.80)		
성매매 전력	없음	3.42 (1.80)	-1.42	333
	있음	3.71 (1.98)		

* $p < .05$, ** $p < .01$, *** $p < .001$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3 참조). 그 결과, 가해자 처벌에서는 성별의 주효

표 2.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가해자 처벌, 피해자 비난, 권위주의 성격, 강간 통념 수용도 기술통계

연령대	가해자 처벌 <i>M (SD)</i>			피해자 비난 <i>M (SD)</i>			권위주의 성격 <i>M (SD)</i>			강간 통념 수용도 <i>M (SD)</i>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대	4.51 (1.83)	6.21 (1.37)	5.40 (1.81)	3.77 (2.03)	2.40 (1.75)	3.06 (2.00)	2.70 (.48)	2.57 (.63)	2.63 (.56)	2.26 (.59)	1.53 (.67)	1.88 (.73)
30대	3.85 (1.86)	5.72 (1.22)	4.85 (1.81)	4.00 (1.88)	3.15 (1.74)	3.55 (1.85)	2.82 (.55)	2.62 (.56)	2.71 (.56)	2.63 (.73)	2.05 (.75)	2.32 (.79)
40대	4.82 (1.57)	5.63 (1.32)	5.21 (1.51)	3.64 (1.86)	3.76 (2.01)	3.69 (1.92)	2.82 (.51)	2.65 (.56)	2.74 (.54)	2.57 (.73)	2.10 (.84)	2.34 (.84)
50대	4.88 (1.81)	5.51 (1.27)	5.19 (1.59)	3.98 (1.68)	3.85 (1.77)	3.92 (1.71)	2.86 (.53)	2.74 (.46)	2.80 (.50)	2.64 (.54)	2.39 (.79)	2.52 (.68)
전체	4.53 (1.80)	5.77 (1.81)	5.16 (1.69)	3.84 (1.85)	3.28 (1.89)	3.56 (1.89)	2.80 (.52)	2.72 (.54)	2.72 (.54)	2.53 (.67)	2.02 (.83)	2.27 (.79)

표 3.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 권위주의 성격, 강간 통념 수용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i>SS</i>	<i>df</i>	<i>MS</i>	<i>F</i>	partial η^2
가해자 처벌	성별	131.38	1	131.38	54.94***	.14
	연령대	15.80	3	5.27	2.20	.02
	성별x연령대	24.22	3	8.07	3.38	.03
	오차	781.95	327	2.39		
피해자 비난	성별	25.62	1	25.62	7.57**	.02
	연령대	30.10	3	10.03	2.96*	.03
	성별x연령대	28.62	3	9.54	2.82*	.03
	오차	1106.82	327	3.39		
권위주의 성격	성별	1.95	1	1.95	6.74*	.02
	연령대	1.13	3	.38	1.30	.01
	성별x연령대	.09	3	.03	.11	.00
	오차	94.786	327	.29		
강간 통념 수용도	성별	21.68	1	21.68	42.00***	.11
	연령대	17.31	3	5.77	11.18***	.09
	성별x연령대	2.54	3	.85	1.64	.02
	오차	168.75	327	.52		

* $p < .05$, ** $p < .01$, *** $p < .001$

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1, 327) = 54.94, p < .001$). 즉, 여성이 남성보다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비난에서는 성별의 주효과와($F(1, 327) = 7.57, p < .01$) 연령대의 주효과($F(3, 327) = 2.96, p < .05$), 그리고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효과($F(3, 327) = 2.82, p < .05$)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권위주의 성격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1, 327) = 6.74, p < .05$) 유의하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더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통념 수용도에서는 성별($F(1, 327) = 42.00, p < .001$)과 연령대($F(3, 327) = 11.18, p < .001$) 각각의 주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강간 통념 수용

도가 더 높았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참가자의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중다회귀분석의 기준변인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이었고, 예측 변인은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 권위주의 성격, 강간 통념 수용도였다.

가해자 처벌을 기준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7, 327) = 19.146, p < .001$), 설명력은 약 29%였다($R^2 = .291$).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참가자의 성별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가해자 처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피해자다움에

표 4.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해자 처벌		피해자 비난	
	<i>B</i>	β	<i>B</i>	β
상수	3.857		1.75	
피해자다움	.90	.27***	-.56	-.15**
성매매 전력	-.37	-.11*	.45	.12**
가-피 관계	-.19	-.06	-.60	-.16***
성별	.98	.29***	.14	.04
연령	.02	.10	.00	.00
권위주의 성격	.29	.09	-.28	-.08
강간 통념 수용도	-.68	-.32***	1.46	.61***

* $p < .05$, ** $p < .01$, *** $p < .001$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고 성매매 전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낮은 판단자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높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 327) = 26.049, p < .001$), 피해자 비난을 약 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358$).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인은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참가자의 강간 통념 수용도였다. 즉, 피해자다움

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성매매 전력이 있으며 가해자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판단자의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였다.

피해자 비난에 대한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

성별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권위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2)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림 1 참조). 분석 결과 권위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이 피

표 5. 성별과 피해자 비난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성별 → 피해자 비난	-.5601	.2045	-.9624	-.1577
직접효과				
성별 → 피해자 비난	-.4247	.2005	-.8191	-.0304
간접효과				
성별 → 권위주의 성격 → 피해자 비난	-.1353	.0606	-.2709	-.0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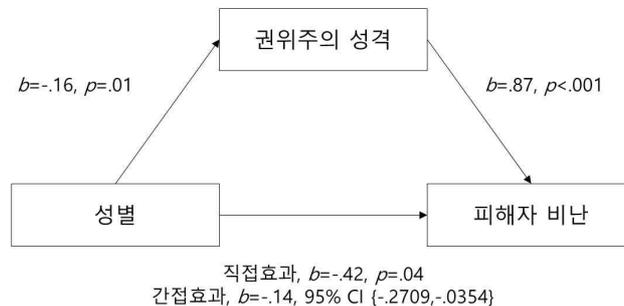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피해자 비난 간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 모형

해자 비난에 미치는 총효과와 매개변인인 권위주의에 미치는 효과($b = -.16, t(333) = -2.66, p < .05$) 모두 유의하였다. 즉, 남성은 강한 수준의 피해자 비난과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성격을 예측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성격은 강한 피해자 비난과 연관되어 있었다($b = .87, t(332) = 4.68, p < .001$).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성격을 통제한 뒤에도 남성은 강한 피해자 비난과 관계가 있었다($b = -.42, t(332) = -2.12, p < .05$). 이를 통해 권위주의 성격이 성별과 가해자 처벌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성별에 영향을 받은 권위주의 성격이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과 피해자 비난 사이의 관계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시행한 결과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그림 2 참조). 먼저 연령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총효과($b = .03, t(333) = 3.03, p < .01$)와 매개변인인 권위주의 성격에 미치는 효과($b = .01, t(333) = 2.29, p < .05$) 모두 유의하였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강한 수준의 피해자 비난과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성격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 성격이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87, t(332) = 4.70, p < .001$).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성격을 통제한 뒤에도 높은 연령은 강한 피해자 비난과 관계가 있었다($b = .02, t(332) = 2.51, p < .05$). 종합하면 권위주의 성격이 연령과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연령이 높아지면 권위주의 성격 역시 강해지고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피해자 비난 역시 높게 나타나는 효과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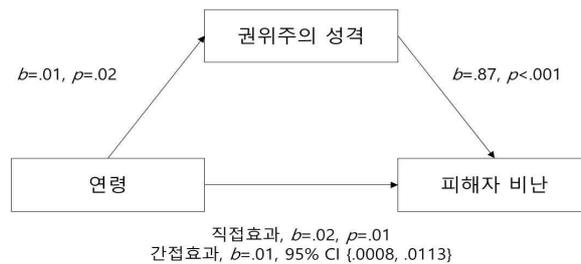


그림 2. 연령과 피해자 비난 간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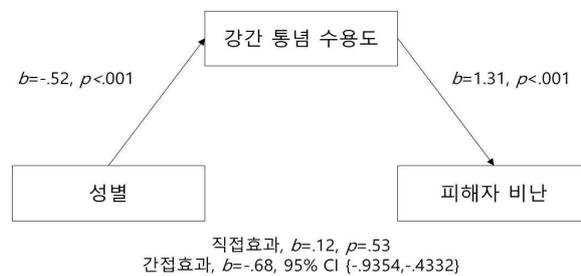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피해자 비난 간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 모형

게,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자 비난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성별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3 참조). 그 결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성별과 피해자 비난 사이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먼저, 성별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총효과($b = -.56, t(333) = -2.74, p < .01$)와 매개변인인 강간 통념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b = -.52, t(333) = -6.26, p < .001$)가 유의하였다. 이는 남성이 강한 피해자 비난, 높은 수준의 강간 통념 수용도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b = 1.31, t(332) = 11.30, p < .001$). 마지막으로 모형에 강간 통념 수용도를 투입하자 성별은 더이상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b = .12, t(332) = .63, n.s.$), 강간 통념 수용도는 성별과 피해자 비난 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별은 직접적으로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성별에 따라 강간 통념 수용도가 달라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해자 비난을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강간 통념 수용도가 연령과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며($b = .03, t(333) = 3.03, p < .01$), 강간 통념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b = .02, t(333) = 5.39, p < .001$).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피해자 비난도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 1.28, t(332) = 11.18, p < .001$), 이는 높은 수준의 강간 통념 수용도가 강한 피해자 비난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과 피해자 비난 사이에 매개변인으로 강간 통념 수용도를 투입하자 피해자 비난에 대한 연령의 직접효과가 더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 = .002, t(332) = .24, n.s.$), 연령과 피해자 비난 사이의 관계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령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높아지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해자 비난을 더 강하게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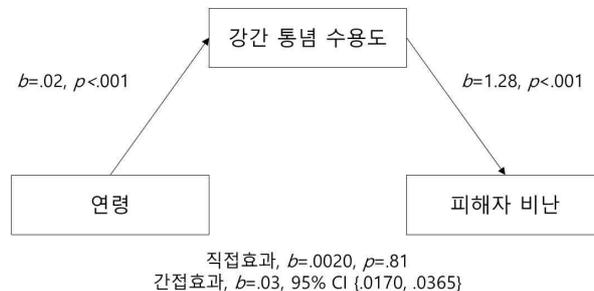


그림 4. 연령과 피해자 비난 간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 모형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

이번에는 가해자 처벌과 연관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과 가해자 처벌 사이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표 6, 그림 5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강간 통념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 ($b = -.52, t(333) = -6.26, p < .001$). 즉, 남성은 낮은 수준의 가해자 처벌, 높은 수준의 강간 통념 수용도와 연관이 있었다. 강간 통념 수용도가 가해자 처벌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 -.50, t(332) = -4.52,$

$p < .001$), 이는 높은 수준의 강간 통념 수용도가 낮은 수준의 가해자 처벌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강간 통념 수용도를 통제 한 뒤에도 성별은 가해자 처벌에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b = .98, t(332) = 5.58, p < .001$). 이를 종합하면 강간 통념 수용도가 성별과 가해자 처벌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가해자 처벌을 더 가볍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남성일 경우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가해자 처벌을 더 가볍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외에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성별과 가해자 처벌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성별 → 가해자 처벌	1.2433	.1716	.9057	1.5809
직접효과				
성별 → 가해자 처벌	.9844	.1764	.6375	1.3313
간접효과				
성별 → 강간 통념 수용도 → 가해자 처벌	.2589	.0740	.1302	.4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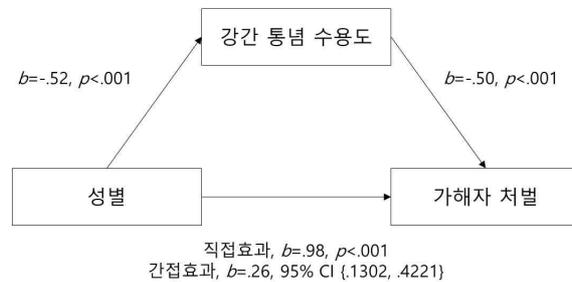


그림 5. 성별과 가해자 처벌 간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모형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의 처벌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가해자 처벌, 피해자 비난 판단의 차이와,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성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 사건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울지 않고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피해자다움에 맞지 않는 행동(윤덕경, 김차연, 2015; 최성호, 2019)을 보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가볍게 하고 피해자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성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요구되는 피해자다움(허민숙, 2017; Hockett et al., 2016; Randall, 2010)이 청소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대, 즉 피해자가 사건 당시 사력을 다해 저항을 하지 않았거나 사건 발생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피해자상’(윤덕경, 김차연, 2015; 허민숙, 2018; Ask, 2010)과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러 모습을 포함하여, 이에 따라 사건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인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여러 모습이(허민숙, 2017; Randall, 2010) 청소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채팅앱을 통해 만난 관계를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던 동료 사이일 때보다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강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 가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지인일 경우 피해자를 더 비난한다는 선행 연구(Bieneck, & Kraché, 2011; Catlin et al., 2019)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채팅앱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상황은 기존 연구에서의 비면식 관계에 가까우나,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더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실이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해자가 겪는 이차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인 청소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형사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데에도 채팅앱 사용 여부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고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을 당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이명신, 양난미, 2012),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은 피해자의 품행 등과 같이 법적 판단 시 고려할 요인이 아니지만,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 그 신뢰도를 더욱 의심받으며(윤덕경, 김차연, 2015; Nixon et al., 2002; Page, 2008; Page, 2010), 피해자에게 유사 성매매 전력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 판단을 내린다는 선행 연구(이지혜 외, 2014)와 맞닿아 있다. 특히 성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역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이래 법 외적 요인이 피고인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할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등 피해자의 행실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편향된 수사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통한 관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윤덕경, 김차연, 2015).

그간 성범죄 사건 판단과 관련된 연구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보수적이며 가해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temeyer, & Altemeyer, 1996; Bray & Noble, 197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권위주의 성격이 성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나 다른 범죄 유형과는 다른 성범죄 사건 판단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Devine & Caughlin, 2014), 향후에는 성범죄 외에 다양한 범죄 유형에 있어 권위주의 성격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의 성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해자 비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강간 통념 수용도의 완전 매개 효과

는, 성별과 연령이라는 판단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판단자가 갖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종사자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해자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의 강간 통념 수용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더 나아가, 향후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강간 통념 수용도를 조사하고, 그 수용도가 자기 비난 및 성범죄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 및 치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혹은 강간 통념 수용도 등은 사법체계 종사자들이 수사 혹은 재판 등의 법적 절차에서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친다(이명신, 양난미, 2019; Ask, 2010; Lievore, 2005; Parratt & Pina, 2017; Sleath & Bull, 2017).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사법체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인 가해자가 15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적용 가능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에 의해서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비해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을 다양화하여, 가해자가 각각 성인일 경우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만약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판단자의 특성(성별, 연령, 태도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비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이나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 채팅앱 사용을 통한 가해자와의 관계, 또한 강간 통념 수용도나 권위주의 성격과 같은 판단자의 태도 등이 성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배심원을 비롯하여 수사관 등 성범죄를 다루는 법적 절차 각 과정에서의 실무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이러한 법 외적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권인숙, 이진정,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폭력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5(3), 117-139.

김성현, 임광현, 성현준, 성나경, 김성희, 김광수, 이수정 (2019).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8(4), 3-36.
 김은하, 신윤정 (2016). 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의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31-453.
 김혜선, 박지선 (2018). 동물학대의 재범방지 및 처벌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성별 및 폭력허용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8(3), 51-82.
 노성훈, 정진성 (2019). 성별에 따른 성희롱 심각성인식의 차이: 피해경험에 의한 피해자비난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형사정책연구, 30(4), 329-356.
 대검찰청 (2019). 2019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77-96.
 박지선, 박인선 (2011).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 실제 국내 강간 범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9), 362-371.
 서윤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33-59.
 여성가족부 (2019).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윤덕경, 김차연 (2015). 성폭력 판례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7(1), 73-107.
- 이가영, 인다희, 김범준 (2018). 심리적 거리와
처벌 판단: 시간적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4), 25-40.
- 이명신, 양난미 (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
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여
성연구, 149-197.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
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0.
- 장명선 (2018).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
책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0(3), 111-147.
-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의식
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
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1), 45-66.
- 최성호 (2019). 피해자다움을 위한 변론: 왜
우리는 성범죄 재판에서 고소인의 피해자
다움을 물어야 하는가?. 법철학연구,
22(1), 381-456.
- 추지현, 권인숙 (2017).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
해자의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교
정복지연구, 179-203.
-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적이 없다.
한국여성학, 33(3), 1-31.
- 허민숙 (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한
국여성학, 34(4), 69-97.
- 허현정 (2020). 청소년 일탈 SNS사용 주의
보...디지털성범죄 노출 위험. 매일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
D&mid=sec&sid1=102&oid=088&aid=000064
7779.
- 홍세은, 이현정, 허태균 (2018).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
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01-118.
- 홍영은, 박지선 (2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18.
- Adorno, T., Frenkel-Bre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2019).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Verso Books.
- Alderden, M. A., & Ullman, S. E. (2012). Gender
difference or indifference? Detective decision
making in sexual assault cas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 3-22.
- Altemeyer, R. A.,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Harvard University
Press.
- Aosved, A. C. & Long, P. J. (2006).
Co-occurrence of rape myth acceptance,
sexism, racism, homophobia, ageism, classism,
and religious intolerance. Sex Roles, 55,
481-492.
- Ask, K. (2010). A survey of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beliefs about crime victim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6), 1132-1149.
- Bhattacharya, G., & Stockdale, M. S. (2016).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by evidence
quality, perceiver gender, feminism, and right
wing authoritarianism: Debunking popular
myths. Law and human behavior, 40(5),
594-609.

- Bieneck, S., & Krahé,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785-1797.
- Bray, R. M., & Noble, A. M. (1978). Authoritarianism and decisions of mock juries: Evidence of jury bias and group pola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2), 1424-1430.
- Catlin, M., Scherr, K. C., Barlett, C. P., Jacobs, E., & Normile, C. J. (2019). Bounded blame: The effects of victim - perpetrator relationship and victimization history on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0886260519846863.
- Dawtry, R. J., Cozzolino, P. J., & Callan, M. J. (2019). I blame therefore it was: rape myth acceptance, victim blaming, and memory reconstru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5(8), 1269-1282.
- Devine, D. J., & Caughlin, D. E. (2014). Do they matter?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uilt judgmen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2), 109-134.
- Esnard, C. & Dumas, R. (2013). Perceptions of male victim blame in a child sexual abuse case: Effects of gender, age and need for closure. *Psychology, Crime & Law*, 19(9), 817-844.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ockett, J. M., Smith, S. J., Klausing, C. D., & Saucier, D. A. (2016). Rape myth consistency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ing rape victims: A meta-analysis. *Violence Against Women*, 22(2), 139-167.
- Klement, K. R., Sagarin, B. J., & Skowronski, J. J. (2019). Accusers lie and other myths: rape myth acceptance predicts judgments made about accusers and accused perpetrators in a rape case. *Sex Roles*, 81(1-2), 16-33.
- Landström, S., Ask, K., Sommar, C., & Willén, R. (2015). Children's testimony and the emotional victim effect.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20(2), 365-383.
- Lievore, D. (2005). Prosecutorial decisions in adult sexual assault cases. *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291, 1-6.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 Manoussaki, K., & Veitch, F. (2015). Ambivalent sexism, right wing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Gender and Women's Studies*, 3(1), 88 - 100.
- McMahon, S., & Farmer, G. L.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 Research*, 35(2), 71-81.

- Nixon, K., Tutty, L., Downe, P., Gorkoff, K., & Ursel, J. (2002). The everyday occurrence: Violence in the lives of girls exploited through prostitution. *Violence against women*, 8(9), 1016-1043.
- Page, A. D. (2008). Judging women and defining crime: Police officers' attitudes toward women and rape. *Sociological Spectrum*, 28(4), 389-411.
- Page, A. D. (2010). True colors: Police officers and rape myth acceptance. *Feminist Criminology*, 5(4), 315-334.
- Parratt, K. A., & Pina, A. (2017). From "real rape" to real justice: A systematic review of police officers' rape myth belief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68-83.
- Randall, M. (2010). Sexual assault law, credibility, and "ideal victims": Consent, resistance, and victim blaming.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2(2), 397-433.
- Rogers, P., & Davies, M. (2007). Perceptions of victims and perpetrators in a depicted child sexual abuse ca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5), 566-584.
- Sibley, C. G., Wilson, M. S., & Duckitt, J. (2007). Antecedents of men's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The dual role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2), 160-172.
- Sleath, E., & Bull, R. (2017). Police perceptions of rape victims and the impact on case decision making: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102-112.
- Spaccatini, F., Pacilli, M. G., Giovannelli, I., Rocco, M., & Penone, G. (2019). Sexualized victims of stranger harassment and victim blaming: The moderating role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Sexuality & Culture*, 23(3), 811-825.
- Stewart, D., & Hout, T. (1959). A social-psychological theory of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5(3), 274-279.
- Sullivan, B. (2007). Rape, prostitution and consent.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0(2), 127-143.
- Süssenbach, P., Eyssel, F., Rees, J., & Bohner, G. (2017). Looking for blame: Rape myth acceptance and attention to victim and perpetrat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5), 2323-2344.
- Ullman, S. E. & Filipas, H. H. (2001). Predictors of PTSD symptom severity and social relation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2), 369-389.

1 차원고접수 : 2021. 01. 29.

심사통과접수 : 2021. 03. 08.

최종원고접수 : 2021. 03. 23.

Differences in th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involving juvenile victim by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Yerim Lee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involving juvenile victims vary by history of victim's juvenile prostitution, victim's behavior conforming to stereotypes of an "ideal" victim, and relationships between victim and perpetrator. The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participants' level of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on their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A total of 335 participants (170 females, 165 males) in their 20s to 50s assessed the degree of victim blaming and perpetrator sentencing.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ticipants' gender and age on the judgments of victim blaming and perpetrator sentencing,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As a result, participants blamed the victim more and imposed a lighter sentence on the perpetrator when the juvenile victim did not conform to the image of an "ideal" victim of sexual violence as opposed to a "typical victim". They also blamed the victim more wh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met through a chat application than wh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had known each other. Male participants as opposed to female participants blamed the victim more, punished the perpetrator more lightly, and exhibited a higher level of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The older the participants were, the more they blamed the victim and the higher they demonstrated rape myth acceptance.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gender on the judgment of the perpetrator punishment was mediated by rape myth acceptance, and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gender and age on the victim blaming was mediated by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Key words : sexual violence against juvenile victims, victim stereotypes, history of juvenile prostitution, chat application, authoritarianism, rape myth acceptance